

ESG 프로스포츠의 신선한 바람,



정인욱

강원FC 프로축구단 미래기획팀장
프로스포츠, ESG에 관심
sprinter83@naver.com

“스포츠 경기에서도 탄소가 배출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스포츠 경기를 위해 이동하는 선수들이 탄 버스와 경기관람을 위해
팬들이 운전하는 자동차들 대부분이 화석연료를 사용한다. 또한 선수
들과 관중들이 경기 중 마시는 음료도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있다.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그리고 투명한 기업 운영을
위한 미래를 위한 발걸음이 시작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
에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또한 기상이변
을 피해 갈 수 없다. 각종 재해와 재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요즘
수온은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매년 기록을 경신하는 강력한 태풍이 발생
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전례 없는 폭우로 인
해 다양한 곳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 2022년 9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 힌남노(Hinnamnno)도 이런 환경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경북 포항지역에 시간당 11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으며 이는 기
상관측 사상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강수량이었다.

이러한 천재지변에 의한 자연재해는 프로스포츠 구단도 피해 갈 수 없
었다. 포항을 연고로 하는 포항 스틸러스 프로축구단은 태풍에 직격탄을
맞았다. 태풍이 몰고 온 어마어마한 폭우로 인해 경기장 전체가 물에 잠
겼으며 경기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아직은 크게 인지
하고 있지는 않지만 프로스포츠도 이러한 환경오염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중이다.

2021년 국내 프로스포츠 단체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탄소중립리
그를 선포하였다. 그와 동시에 K리그는 국내 프로스포츠 단체 중 최
초로 UN기후변화협약의 ‘스포츠기후행동협정(UNFCCC Sports for
Climate Action)’에 참여하였다. 연맹은 K리그 관련 탄소배출량 평가
시행, 경기장 내 일회용품 감소, 팬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친환경 캠페인 확대 등의 목표를 함께 발표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제주도를 연
고로 두고 있는 프로축구단인 제주 유나이티드는 K리그 최초로 탄소중
립경기를 진행하였다. 탄소중립 경기가 무엇인지는 바로 와 닿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지구에서 탄소배출이 미치는 영향은 엄
청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ESG 경영이 본격화되면서 프로스포츠도



ESG 활동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이제 ESG는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된 것이다.

최근 프로스포츠와 관련하여 ESG 트렌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기 성적만을 최우선시 하던 프로스포츠 구단에도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다. 기후변화를 넘어서 기후 위기의 세상에 살고 있는 지금 프로스포츠 구성원들 또한 눈앞에 있는 가시적인 경기 성적보다 더 큰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것이다. 물론 성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프로스포츠 구단의 본질인 성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성적만큼, 오히려 성적을 뛰어넘는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되었다.

● 국내 프로스포츠의 태동 ●

우리나라 프로스포츠는 1982년 프로야구가 출범하며 프로스포츠의 시작을 알렸다. 그다음 해인 1983년 5월 8일 동대문운동장에서 한국 프로축구의 개막을 알리는 슈퍼리그가 시작되었다. 프로스포츠의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이어 1997년 남자 프로농구, 1998년 여자 프로농구가 출범하면서 대표적인 관람 스포츠로 정착하였으며, 이후 2005년 배구가 프로화를 선언하며 4대 프로스포츠의 한 축을 구성하게 되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4대 프로스포츠 구단 운영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국내 프로스포츠 구단 현황

프로축구 (K리그)	K리그1 (12개 구단)	울산현대, 전북현대, 포항스틸러스, 인천유나이티드, 제주유나이티드, 강원FC, 수원FC, FC서울, 대구FC, 김천상무, 수원삼성, 성남FC
	K리그2 (11개 구단)	광주FC, 대전하나, 안양FC, 부천FC, 경남FC, 충남아산, 서울이랜드, 김포FC, 안산그리너스 전남 드래곤즈, 부산아이파크
프로야구 (KBO)	프로리그 (10개 구단)	SSG랜더스, LG트윈스, 키움히어로즈, KT위즈, KIA타이거즈, NC다이노스, 롯데자이언츠, 삼성 라이온즈, 두산베어스, 한화이글스
프로농구 (KBL)	남자농구 (10개 구단)	KGC인삼공사, 삼성썬더스,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 캐롯 점퍼스, KCC이지스, LG세이커스, KT소닉붐, 현대모비스 피버스, SK나이트, 원주DB
	여자농구 (6개 구단)	삼성생명 블루밍스, 하나원큐, KB스타즈, BNK 썸, 우리은행 우리WON, 신한은행 에스버드
프로배구 (KOVO)	남자배구 (7개 구단)	대한항공 점보스, KB손해보험 스타즈, 삼성화재 블루팡스, 한국전력 빅스톰, 우리카드 WON, OK금융그룹 웃맨
	여자배구 (7개 구단)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 IBK기업은행 알토스,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GS칼텍스 서울Kixx,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 KGC인삼공사

프로스포츠는 가지고 있는 특성이 명확하다. 무료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여가시간 증대를 통한 취미활동 증대와 함께 기쁨과 환호 또한 존재한다. 또한 가족 간의 소통이 부족한 요즘 서로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준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스포츠가 현대인의 지친 일상의 활력소가 되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프로스포츠 경기장에서 일을 하면서 너무나 행복해하는 팬들을 많이 보왔다. 평생 잊지 못할 기억,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추억들을 선물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듯함을 느낀다.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다른 회사를 다니면서 흔히 느끼지 못하는 감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매력이 많은 프로스포츠도 이제 변화의 시점이 다가왔다. 프로스포츠의 미래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 프로 스포츠는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미래에 프로 스포츠 경기는 어떻게 진행될까?' 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



© imagetoday

ESG란 무엇인가?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첫 글자를 합쳐놓은 약자로 환경보호활동, 사회공헌활동, 윤리적 지배구조개선 등을 기반으로 하는 비재무적 요소를 뜻하는 단어이다. 지금까지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은 가시적인 지표인 재무적인 평가에 의해서만 기업의 가치를 매겨왔다. 하지만 그러한 숫자만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ESG의 핵심 목표는 비재무적 지표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ESG가 최근 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 ESG가 급부상 된 이유는 다음 3가지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사건은 2019년 미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해당하는 BRT(Business Round Table) 선언이다. 180여개의 대기업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BRT 선언'을 발표하였고 그 자리에서 ESG 경영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국가에서 시장개입을 추진하며 위기 의식을 느낀 대형 투자사들은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기업에 투자한다"는 선언이 BRT선언이었다.

두 번째 사건은 블랙록(BlackRock)의 래리 핑크 회장이 발송한 연례 서한이다. 래리 핑크 회장은 2020년 주요 대기업 CEO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향후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을 투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어 2021년 1월 보낸 편지에서는 "기업의 사업 구조가 탄소중립(Net-Zero)과 양립할 수 있는 계획을 공개하라"고 말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경영체계와 장기 전략을 통한 ESG의 빠른 이행을 요구하였다.



세 번째 사건은 미국의 46대 대통령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지구촌 197개국이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포괄적 체제(Universal and Comprehensive)의 파리협정(Paris Agreement, 2015년)에 다시 함께하기로 선언하였다. 전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는 미국이 파리협정에 복귀하면서 환경을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ESG 경영'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 국내 스포츠 ESG ●

국내 프로스포츠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2021년을 기점으로 스포츠 관련 협회 및 연맹, 구단에서 ESG 경영을 선포하고 나섰다. 그동안 국내 프로스포츠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주력으로 해왔다. 우리나라 프로스포츠 구단들은 모기업에 의존하며 운영되는 구단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지금까지는 사회적 책임(CSR)에 집중하는 구단들이 대다수였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공유가치 창출(CSV)로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서 최근 ESG 경영에 대한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프로스포츠 단체들은 앞다투어 ESG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ESG 활동을 하기 위한 조건은 스포츠 구단이 최적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우리의 관심이 소홀했지만 구단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은 ESG와 관련된 것들이 많다. 프로스포츠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각종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고 매 경기 많은 관중들이 모이기 때문에 팬들을 대상으로 하는 ESG 활동 역시 진행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가 열리는 날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탄소의 배출량은 약 60톤 정도라고 전해지고 있다. 경기장에서 발행하는 종이 입장권, 경기장 출입 시 배포하는 응원도구, 관중 교통수단, 경기장 전력사용, 식·음료 소비 등 모든 분야에서 탄소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경기가 끝나고 배출되는 폐기물 문제도 심각하다.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야구장에서 2,203톤, 축구장에서 1,342톤의 폐기물이 발생하였다. 경기장에서 나오는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환경오염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을 강조하는 요즘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표 2〉 스포츠 경기장 및 레저시설 폐기물 발생 현황

시 설	1년 폐기물 발생량(톤)	시설 수(개)	연간 이용객수(명)
축구장	1,341	8	332만 380
야구장	2,203	8	719만 2,916
농구장	126	8	149만 1,305
전체	1만 9,201	92	5,104만 5,594

* 전체는 스포츠 경기 및 레저시설 포함 / 2017년 기준

© 통계청

경기관람을 위해 경기장으로 이동하는 순간부터 ESG와 연관성이 성립한다.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탄소배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화석연료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버스나 자전거 등 환경오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교통수단을 이용한다면 그것부터가 ESG를 실천하는 시작이 될 것이

다.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입는 유니폼도 ESG 실천을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다. 페페트병을 재활용하여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활동들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K리그에 있는 수원 삼성 프로축구단은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섰다고 하여 그린위너스상을 수상하였다. 구단은 시즌 중 경기장 내 분리수거 및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홈경기에서 사용하는 물품도 친환경 제품을 우선 사용하였다. 선수들은 재활용 페트병으로 특별 제작한 유니폼 및 스타킹을 착용하고 경기에 참여하였다. 동시에 홈경기장인 수원월드컵경기장도 물 사용 저감을 위해 지하 저류조 빗물 재사용을 위한 시설을 증설하였으며 전기자동차 이용을 독려하기 위하여 경기장 내 전기차 충전소를 추가적으로 설치하였다.

지역을 연고로 하는 프로스포츠 구단들은 지역사회에 깊숙하게 녹아 들어있다. 각종 사회공헌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활동들을 지속하고 있다.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더 깊숙하게 들어가고 더 가까이에서 스킨십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프로농구연맹(KBL)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바탕으로 ESG 활동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인터넷 종합포털인 네이버와 함께 다양한 모금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 기부를 하였다. 또한, 법무부와 MOU를 체결하여 소년원 재소자, 보호관찰 청소년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해 농구코트를 기증하였다. 이 밖에도 인공관절 수술비지원, 각 구단의 감독 재능기부, 농구용품 지원 등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ESG 경영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중이다.

● 해외 스포츠 ESG ●

해외 프로구단 역시 너도나도 할 것 없이 ESG 경영을 선언하고 있으며 구단 뿐 아니라 각종 환경단체 및 사회단체들도 ESG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프로스포츠 ESG가 가장 활발한 국가로는 미국을 꼽을 수 있다. 미국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환경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왔다. 2010년 설립된 그린 스포츠 얼라이언스(Green Sports Alliance, GSA)는 친환경 단체로 약 600여개의 글로벌 스포츠 단체와 기후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제단체다. 친환경이 강조되면서 이해관계자들이 증가하고 여기에 동참하는 구단들도 늘고 있다. 그린스포츠 얼라이언스는 2022년 현재 16개 리그에 194개 프로스포츠 구단이 참여하고 있으며 스포츠 시설인 경기장도 195개가 등록되어 있다. 미국의 스포츠 관련 협회 및 구단들은 환경과 관련된 활동들을 점차 증대함과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그 밖에 해외 구단들의 ESG 활동을 살펴보면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토트넘 홋스퍼(Tottenham Hotspur) 구단을 볼 수 있다. 토트넘은 ESG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종 이벤트 및 활동에 집중하고 있으며 탄소를 줄이기 위한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탄소제로 이벤트를 진행함으로써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기장 이동, 맥주컵 재사용, 로컬푸드 사용 등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UN의 '스포츠 기후 행동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축구장을 친환경 경기장으로 건설하였다. 2016년부터 2019년에 걸쳐 4년간의 건설기간이 소요되었고 62,850명이 입장할 수 있



며 건설비용은 약 1조 5천억 원이 투입된 축구전용구장이다.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해 에코스트럭처(EcoStruxure)사의 플랫폼을 설치하여 경기장 온도와 조명 등 전력소비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그림 1〉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 외관



〈그림 2〉 경기장 내부 응원석

© 위키피디아

이탈리아의 유벤투스(Juventus)가 홈경기장으로 사용하는 알리안츠 스타디움(Allianz Stadium)은 2009년에 착공하여 2011년에 개장하였으며, 41,507석의 관중이 입장할 수 있는 축구전용구장이다. 알리안츠 스타디움은 친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지은 축구장으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장을 건설하였으며, 건설 당시 기존 자리에 위치한 경기장에서 철거한 콘크리트를 재활용하였다. 또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지역난방을 사용하여 난방용 온수도 생산하고 있는 축구전용경기장이다.



〈그림 3〉 알리안츠 스타디움 외관



〈그림 4〉 경기장 내부 응원석

© 위키피디아

일본의 감바 오사카 경기장 역시 친환경 시설을 고려하여 설계된 경기장이다. 이 경기장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이다. 4면의 지붕 중 3면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연간 1,600만 엔(약 1억 6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산된 전력은 경기가 있는 날 사용하며, 사용하고 남은 전력은 재판매 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과 더불어 수익창출도 고려한 경기장이다.

프로스포츠 ESG의 지향점

현재 국내 프로스포츠 ESG는 결음마 단계이다. 앞으로 10년 후 100년 후의 미래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스포츠 ESG의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프로스포츠 ESG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야 한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K-ESG 추진 방향에 발맞춰 가야 한다. 지금은 강제성이 없고 각자의 계획에 의해 진행되고 있지만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등 장기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계획이 마련 되어야한다. 이를 주도하기 위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관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 할 수 있는 계획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 단계별 계획을 세워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2. 프로스포츠 ESG를 담당하는 전문가가 육성되어야 한다.

Sports ESG 과정을 신설하고 인증 및 자격획득 여건을 마련하여 전문가 양성에 힘써야 한다. 스포츠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린 교육 커리큘럼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종 연구와 분석을 통해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고 ESG에 맞는 프로스포츠 ESG 커리큘럼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프로스포츠 ESG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비영리 단체를 육성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미국의 경우 그린 스포츠 얼라이언스라는 단체가 조직되면서 프로스포츠 ESG에

관한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프로스포츠 ESG를 담당할 수 있는 비영리 단체를 육성하여 큰 그림을 제시해 줘야 할 것이다.

4. 프로스포츠 ESG에 대한 평가지표가 마련되어야 한다.

프로스포츠 관련 단체에서 어떠한 활동을 추진할 때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는 ESG로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가시적인 평가지표가 필요하다. 또한 프로스포츠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모든 입찰은 필수적인 요소로 ESG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5. 특정 분야에 치중되지 않는 ESG 통합시스템이 필요하다.

최근 ESG 경영은 대부분 환경 부분에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현장에서 느낀 ESG의 진행 비율은 2(환경) : 7(사회) : 1(지배구조)의 비율정도 될 것이다. 이러한 상대적 불균형은 ESG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다. 한 분야에 치중된 ESG가 아니라 모든 요소를 골고루 진행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야 한다.



© gettyimages



마무리

그 어떤 누구도 미래에 다가올 상황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기후변화를 비롯하여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기후위기 상황은 다가오는 미래가 어떠한 상황으로 전개될지 예측해 볼 수 있다.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ESG공시가 의무화된다. 또한 감독기관에서는 ESG 관련 기업공시와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같은 상황을 타인의 일로 치부하는 것은 곤란하다. 언제 어느 순간 갑자기 ESG 관련 법규가 제정되어 프로스포츠에 적용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시급성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대응 없이

방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부터 준비하는 퍼스트 무버가 되어야 한다. 어떠한 일이든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은 없다. 동전에도 양면이 존재하듯 장점과 단점은 공존한다. 눈앞의 실익만 추구하여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과오를 범하면 안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 ESG가 논하는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에 관한 문제는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준비해가지 않는다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앞으로 우리가 직면할 미래, 후손에게 물려줄 미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 시작의 최우선순위는 프로스포츠 ESG가 될 것이다.



© clipartkorea